

# 80년대 간호를 내다본다

전 산 초

(본회 중경회장  
연대 간호대학장)



은 세계가 극도로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

은 모두 인간의 복지와 건강사업에 깊이 관련되고 있어 상호복합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고 건강사업의 개념제도, 전달체제 등 이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징조들은 80년대를 지향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의미요, 개념이요, 과제라고 생각된다.

미래에 대한 개념은 무슨 예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미래의 형태는 의식적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 이와같은 확신은 미래를 내다보는 뜻있는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고 또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택의 효과를 거두려면 미래 그리고 미래와 현재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의하여 현재의 행동이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미래 학자들은 2000년대를 인간의 위기라고들 한다. 또는 극도로 산업화해가는 현 사회를 부정적으로 불안과 갈등의 시대라고 내다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한 긍정적으로 낙관하는 자도 있다.

최근에 이르러 급속하게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발전도상국에 있어서의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등에 의한 인류의 위기의 접근에 대해서 인류로서 가능한한 이를 회피 혹은 예방하는 것을 심각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래에 닥아오는 인간의 문제들은 인간의 건강관리문제와 건강인권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건강요원에게는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실시(Implementation)가 병행되는 역할이 확대되어 갈 것을 예견하게 된다.

1978년 WHO와 UNICEF의 주최로 소련 Alma-Ata에서 개최한 1차건강관리에 관한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에서 인간의 건강관리와 건강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안을 함께 시행할 것을 세계 만방에 표명했다. 즉, 이상적인 건강전달 체제로서 일차 건강관리 접근방안을 실행해 보자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대표단도 여기 참석하여 당시 보사부장관이 강연을 함으로서 이것에 뜻을 같이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시범연구사업에서 일차건강관리 접근법이 바로 국민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건강사업방안으로 선택되었으며 또한 이것의 주도적 역할의 적격인 직종이 간호직

임을 결론짓고 이미 그 보고서가 보건사회부와 AID에 전달된 줄 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의 보건학자들이 인류의 복지와 건강을 생각하여 그들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요 암시라고 하겠다. 이제 80년대는 과거 연구와 평가로 이룩해 놓은 길을 선택하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밀고 나아가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늦기 전에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래가 닥쳐올 때까지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내린 결정은 언제나 너무 늦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는 많은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여러가지 형태의 일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리는 현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조건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결정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가서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취할 수 없는 선택의 자유를 놓쳐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또는 미래에 가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노선이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80년대의 미래를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로 본다는지 또는 내일의 세계가 오늘의 세계와 아주 흡사하며 오직 차이가 있다면 모든 물건들이 더 많아진다는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뿐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근거에서 미래의 장기계획을 작성한다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지금있는 숫자를 조금씩 늘여서 계획하면 그만이라는 것에 끝나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한가지 가능한 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실제로 가능한 광범위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여러가지 경향의 상호작용이나 충돌로 해서 어느 정도는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미

래 뿐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사회나 인류가 스스로 원하는 것에 대한 집단적인 공동의 의사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 사회나 인류가 이룩할 수 있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범위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촉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2000년대의 문턱인 80년대는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일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업의 양상은 다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제 건강은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 되었다.

건강사업의 범주는 세계에까지 파급되어 나 혼자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국가 그리고 전세계가 다함께 건강할 때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 개인의 문제를 그들 개인의 책임으로만 풀릴 수는 없다.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책임으로 생각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높아가는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건강인련운동을 계속하되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구법에 보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는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건강"을 함유하는 것이며 정부와 그 지역사회(이웃)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인 조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이 기구법을 받아들여 국법으로 삼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인권을 보장해 주며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복지국가라고 한다.

우리 앞에 전개된 확대되어 가는 역할을 인식하고 실행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정립하며 확신을 가지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법을 지속하고 평가 연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나가 국민을 대상으로 그

들의 건강인권의 옹호자요 대변자요 또한,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될 것이다.

**건강사업 실제의 미래상**

1. 질적인 간호를 줄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 변화를 지향한 사회 정의적 움직임이 발동될 것이다. 이에 따라,
2. 각 보건 전문직요원은 각자의 직업적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이것이 인정될 것이며
3. 간호가 살아있는 실제적 간호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직업적 운명을 조절하고 그것의 자율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올바르게 성숙한 사람은 의존으로 부터 상호의존이나 독립으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진리를 토대로 하여 간호의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건강전문직과 상호협력하는 관계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4. 미래의 건강간호사업의 활동은 지속적인 연

구와 평가를 병행함이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는 국민건강관리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5. 일차건강관리라는 새로운 건강전달체계가 법으로 세워지고 그 계획 속에 수요자의 의견도 포함될 것이다.  
건강간호사(Nurse Practitioner)와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건강요원과 의 사이에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룩되면 모든 국민에게 질적인 건강간호를 주는 봉사사업이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6. 이상 모든 건강전달체제와 간호관리 및 간호중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적인 인정과 뒷받침이 인정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80년대는 장기적 미래가 결정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적당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그 목적의 추구가 이룩될 수 있을는지 염려된다. ☹

<신간안내>

**기 본 간 호 학**

홍 옥 순 편역

538p

7,500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발행